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에 참가한 석은옥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회원들. 앞줄 왼쪽 세 번째는 사군자 지도 강사 강정숙씨.

한인여성 3명에 장학금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 새임원 선출

석은옥 회장 연임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회장 석은옥, 이하 아여모)에서 3명의 한인 여학생에게 총 2,175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명인 대학생인 성재희씨에게 1,000달러, 신학교 대학원생인 김남순씨에게 500달러, 병석에 있는 상글 맘의 시민권 신청비 지원으로 675달러가 지급됐다.

한편 아여모는 지난 28일 총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2년간 봉사할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은 석은옥 현회장이 연임됐으며 공동 부회장 김명숙·이선옥씨, 총무 양영희, 재무 송지나, 홍보 채수희, 서기 최순옥, 감사 박시내, 실행이사 김정숙·이현애·황오숙씨, 메릴랜드 지회장에 양선영씨가 선임됐다.

애난데일 메이슨 정부청사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동양화가인 강정숙씨를 초청한 특강도 곁들여져 사군자 기초를 배우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아여모 창립 4주년 기념 감사 행사는 10월 16일(토) 필그림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어머니 수기 공모에서 당선된 23편의 글을 모아 엮은 책도 선보일 계획이다.

〈정영희 기자〉

'미래를 위한 환경 리더십 캠프' 참가자들.

쉐난도공원 시설 보수 수리

옥스포드아카데미 '환경 리더십 캠프'

옥스포드 아카데미(원장 이수연)주최 '미래를 위한 환경 리더십 캠프'가 지난 주말 쉐난도어 국립공원에서 열렸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실시된 캠프에는 학생들과 환경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캠프는 쉐난도어 국립공원에서 애팔래치안 트레일을 보수 관리하는 클럽 회원들과 함께 공원 내 캐빈(Cabin)을 보수하는 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보수 공사를 맡은 캐빈은 1865년 지어진 것으로 쉐난도어 국립공원 제 1호 직원인 램버트(Lambert)가의 사유로 있다가 5에이커의 땅과 함께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사회에 기부된 것. 학생들은 석월과 역사가 물어있는 캐빈 주변의 포도밭 넝쿨 정리, 잔디 깎기, 제초작업 등을 비롯 매번 비가 올 때마다 많은 물이 흘러내리는 경사면에 대규모 축대를 쌓는 작업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캠프에 참가한 이한(워싱턴리고교 11학년)군은 "작은 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수연 원장은 "리더십 캠프는 학생 자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스스로 찾는데 목적이 있어 다른 일반 캠프와는 차별화 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역동적 이미지 공간 연출

홍순명씨 등 아시안 작가 4인전 DC 힐리어 갤러리서 3일 개막

한인 홍순명씨 등 아시안 현대작가 4인의 작품을 모은 '퍼즐링 스페이스(Puzzling Space)' 미술전이 이번 주말 워싱턴DC에서 개막된다.

오는 3일(금) 힐리어(Hillyer) 아크 스페이스에서 시작될 전시회에는 회화 설치 작가인 홍순명씨와 태국 출신의 서양화가 차크라판 랄가방나, 중국계 비디오 아티스트 딩 렌, 필리핀계 설치작가 에릭 자무로 씨가 참가한다.

전시회에서 이들 4인의 작가들은 회화, 비디오,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근작을 선보인다.

홍순명 씨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작업하고 있는 회화 설치 시리즈 '사이드 스케이프' 연작을 출품한다. '사이드 스케이프'는 인터넷 보도사진들, 특히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참혹한 장면의 코너를 선택, 확대해서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에 재현, 설치한 것들로 자극적인 실제 장면은 배제된 채 고요한 자연의 일부만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월 워싱턴을 강타한 폭설 관련 미디어 이미지를 재현한 70여 점의 회화를 전시공간에 다이내믹하게 설치한다.

프로젝트 안디니(Project Andini, 대표 전정옥)가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한국문화예술진흥기금이 후원한 국제교류전으로 마련됐다.

제이미 장씨와 공동 큐레이터를 맡은 전정옥 대표는 "전시참여 4인의 작가들은 개념과 과정을 중시하는 장소 특정적인 현장 설치작업을 진행한다"며 "전시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라는 단선적인 교류를 지양하고 워싱턴지역 아시아 작가들의 활발한 교류와 유기적이고 생동감있는 새로운 미술문화교류의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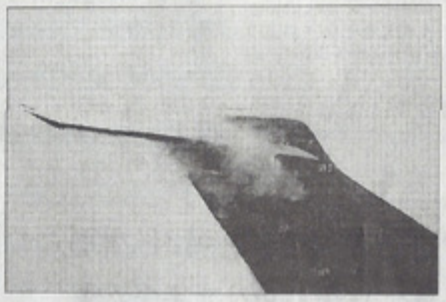
전시 기간 중 작가와의 대화(9월 4일 오후 2시-3시, 아동대상 아트 워크숍(10월 2일 오후 1시-3시30분), 청소년 대상 강의(10월16일 오전 11시-12시30분), VIP감시의 밤(10월22일 오후 6시-8시) 등도 결들여진다.

10월 22일까지 계속될 작품전 개막 리셉션은 9월 3일(금) 오후 6시~9시.

문의(703)507-0864

장소: 9 Hillyer Court, NW, Washington DC 20008

〈정영희 기자〉



홍순명씨의 회화 설치 작품 '사이드 스케이프'.

이준구 사범 초청 강연회

전주 리씨 종약원

전주 리씨 대동종약원 워싱턴 분원(회장 이복신)은 28일 저녁 타이슨스 코너의 한식당 이가에서 태권도계의 원로인 이준구 국제10021클럽 총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복신 회장 취임 이후 처음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이문항, 이병주, 이내원 전 회장 등 종친들이 참석했다.

전주 리씨 종친이기도 한 이준구 총재는 '건강, 부귀, 영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진미애(眞美愛)의 정신을 골격으로 한 트루토피아(Truetopia) 철학을 소개했다.

올해 팔순을 맞은 이 총재는 100회 팔급여 펴기와 송판 격파 시범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또 하모니카 연주로 무도(武道)와 예술의 조화로운 경지를 선보였다.

이복신 회장은 "종약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의 강연이나 행사를 통해 종친들의 삶의 증진에 도움이 될까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0월 초순쯤 북미주 지원장인 이성재 박사를 초청한 간담회 등도 계획해 있다고 밝혔다. 전주 리씨 종약원은 1990년대 말 주한 유엔군 사령관 특별고문을 지낸 이문항씨를 초대 회장으로 발족됐다.

연락 (540)592-3249

〈이종국 기자〉

이준구 총재(왼쪽 두번째)초청 강연회에 참석한 전주 리씨 종약원의 종친들. 앞줄 오른쪽이 이복신 회장.